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정남



경제학자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나는 경제적 양극화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정치적·이념적 양극화 문제라고 본다. 경제적 양극화는 분명 정책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국민 내부의 분열과 적대도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큰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로의 정책적 지향을 통하여 완화,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양극화는 그 안에 증오와 적대를 품고 있어 국민 내부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은 해방 직후의 그것을 방불케 하고 있다.

렇다면, 매카시적 수법으로 비겁하게 명단을 발표하는 수법이 아니라, 차라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지 않은가.

'친북인명사전'은 그 발상에서부터가 최근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대응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친일인명사전'과 '친북인명사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친일인명사전'의 대항마로 '친북인명사전'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친일의 대칭은 결코 친북일 수가 없다. '친일인명사전'은 1999년, '친일인명사전 편찬지지 전국 대학교수 1만인 선언'이 그 바탕이 되어, 경술국치 100년을 앞두고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의 참회적 인성을 지니고 출간된 반국민적, 역사적 적악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일제 36년 동안의 민족적 자성(自省)이 담겨있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대의명분이 있다. 굳이 진실을 밝히는 이유로 누구를 미워하고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옹호하고 화해하기 위함이었다.

책의 서문에서 부친의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고백했던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은 '억압과 수탈은 그것을 당한 쪽에게는 물론, 그 일을 저지른 쪽에게도 더할 수 없는 치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의 그 치욕을 씻어내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내가 알기로 1990년대에 일본총독부건물 및 총독관저를 철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이 전부 아닌가 싶다. 또한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공격화에 반대하고 과거사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나마 우리가 갖추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의 현대정치사는 민족, 민주, 통일

는 것에 다름아니다. '친북인명사전'에 올리겠다는 인사의 선정기준을 비롯한 일련의 행태와 수법이 군사독재 아래서의 공안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대상인물을 선정해 놓고,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는 것이다. 당하는 처지에서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그것은 백주의 테러요, 어느 날 갑자기 뒤늦게 수를 치는 자객수법의 전철이다. 지난날 군사정치문화가 그랬다. 그들은 민주인사들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상투적인 대사로 법정에 세웠다. 억울하면 무죄는 네가 입증해 가라는 것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상화'되기는커녕 비정상적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분열과 적대가 일상화되는 사회로 갈 것이 뻔하다. 대통령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의 위원은 친북인명명단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입적한 법정스님은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 결코 풀이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원한을 가져올 뿐. 원한을 버릴 때에만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작년에 선종한 김수환추기경은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제는 재발 원한을 끊자고, 분열과 적대를 청산하자고.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연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천안함 침몰 원인 무책임한 주장 말아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이 4일이 넘도록 오리무중이 되면서 각종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공격설, 폭발설, 정부 사고 은폐설을 비롯한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구조와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나온다. 모두 초계함에 일각이 있다는 자칭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글들이다.

해군 초계함 침몰사건으로 온 국민이 받은 충격과 비통한 마음은 심본 이해가 되지만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은 불안감만 부추길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 유언비어와 추측성 말들이 오히려 실종자 수색과 사고원인 규명을 더디게 하는 등 후유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온갖 유언비어가 나뉠 때는 사고 수습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정부와 군당국의 책임이 크다. 사

흘이 지나도록 기초적인 사고원인조사 파악을 못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발표 내용이 수시로 바뀐 탓이 크다는 얘기가 있다. 오락가락한 사고 발생 시각도 문제로, 다음날 국방부는 9시30분으로 수정했다. 특히 군이 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하지 않다가 사건 나흘째가 되어서야 공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는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슬데없는 억측과 오해를 피해야 한다. 다행히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선미 부분의 위치가 파악된 만큼 실종 승무원의 구조조각과 사고 원인규명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유언비어는 진실이 밝혀지면 사라지게 된다. 진실은 천안함이 인양된 다음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내내심을 갖고 실종자 수색과 천안함 인양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다.

민주당 배심원제가 부른 공천 파열음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결국 '구두선'에 그치게 됐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배심원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은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13곳에 불과하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경선 일정은 감안해 추가 지역까지 포함하더라도 고작 16곳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단체(250곳)의 6% 수준으로, 민주당이 "전략공천의 상향선인 30% 내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대전은 후보가 단수로 돼 배심원제 실시가 무산됐으며 광주광역시 배심원제를 50%만 적용기로 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부터 지역민의 반대로 전면 도입이 좌절된 게 결정적 패자이라는 지적이다. 배심원제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민심 이반을 불러온 무리수 등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광주 남구가 부실한 심사 와 애매한 배제 기준 등으로 인해 벌써 광역단체 2곳과 광주 남구, 여수, 무안 등 전국적으로 13곳에 불과하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경선 일정은 감안해 추가 지역까지 포함하더라도 고작 16곳에 머물 전망이다.

이제 민주당은 적어도 호남에서 만큼은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정도를 걸어야 한다. 기초의회를 씩씩이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강화한 게 잇그제의 일이고, 지난 4기 민주당이 공천한 기초단체장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로 물러난 것도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그리고도 이 지역을 여전히 '뒷밭'으로 여긴다면 착각 이상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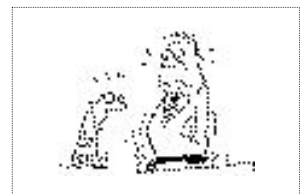
518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던 조선시대에서는 27명의 왕이 자리를 이었다. 그러나 태조부터 순종까지 역대 왕 가운데 환관을 낀 사람은 겨우 6명 뿐이었다.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 요즘 같은 21세기에 모두 '물연사' 형이었다. 이처럼 왕들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문가들은 영양 과다 섭취를 꼽는다. 왕은 한 나라의 최고 권

력자인 만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육구인 식욕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산해진미(山海珍味)를 즐길 수 있었다. 이어 운동 부족, 과로 등이 왕들의 단명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선시대는 물론 우리나라 역대 왕 가운데 최고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은 '종합병동'으로 회자된다. 세종은 짧은 시절 고기 없는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육식을 즐겼다. 반면 당시 왕들이 즐겼던 운동인 사냥을 싫어해 매우 비만했던 것으로 전해 온다. 이렇듯 섭생(攝生)에서는 최악이었

은 2008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똥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 과학자는 비만이 당뇨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사례나 최신 연구에서 보듯이 비만은 모든 병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박치영 시화1부장 unipark@kwangju.co.kr

비만



기고

김용하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가 연구개발특구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적 절차에 들어간다 하니 2007년부터 우리 시가 요청해 온 수원사업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연구개발특구가 되면 첨단산업단지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는 일이 시급하다. 교양을 닦고 흥취를 즐길 줄 아는 교육이야말로 인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은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화력공해 등을 통해 과도한 학력경쟁을 유발하다 보면 계량화하기 어려운 분야는 뒷전에 밀리게 된다.

다행히 우리 광주교육은 성적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 교육과 인성교육 측면에도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유러닝교육

산업과 문화의 동반상승을 기대한다

과 문화가 접목되면 그 이상의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나먼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만 우선 이루어야 할 시급한 일들이 있다. 그것은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석을 놓는 일이다. 그 한 예가 광주를 문화수도도 선포하고 진행하는 문화전당건립사업과 한 달 무료 돌아오는 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일이다.

도시 선포를 통해 일찍 각자의 재능을 탐색 계발하여 발전시키려는 구체적인 교육시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공시행사의 식전식후 행사에서도 약기를 공연하고, 감상하게 하는 것은 시대를 예견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시책을 설명하는 연수가 있었는데, 연수 중간에 전남대대의 교수의 하모니카 연주와 아코디언 연주가 있었고, 한 여학생의 오페라나 연주가 있어 특별한 연수가 되었다. 마침 그 연수를 주관한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이 다른 시도를 다 돌아다녀며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독 광주에서만 이러한 특별한 기획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격찬하면서 금년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창의와 인성교육의 시범이라고 하였다. 우리 광주가 연구개발특구로서 경제적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정신적 풍위를 높이는 문화적 가치가 동반 상승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광주고등학교 교장·수필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김을배



쌀소비 감소와 밥쌀용 수입으로 재고량이 쌓이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농도인 전남에서는 총 농가의 55%인 105천여 농가에서 매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20%인 91만여의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어 타도에 비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남은 기름진 농토와 깨끗한 환경에 햇볕까지 풍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례의 자연조건 속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남 쌀은 밥맛까지 좋은 일미버와 호품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품질 품종이 95% 이상 재배되고

이제는 물이 부족한 전수답 등 한계 농지는 물론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든 밭에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과 소득작물을 재배해 쌀 산업의 안정은 물론 농가 소득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도에서는 타지역에서 재배되지 않거나 재배면적이 적고 소득이 높은 오디, 블루베리, 밤호박 등 틈새 소득작물을 발굴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500여ha에 확대 보급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도 540여ha가 신규로 재배돼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물이 부족한 한계농지 등에는 벼를 대체할 수 있는 1천500ha에 약용작

밭벼보다 소득작물을 심자

있어 전국 최고급 쌀 생산 기지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최고급 브랜드 쌀을 선별하기 위해 농림식품부가 후원하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직접 뽑은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베스트 12' 선정에서 7년 연속 전국 1위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첫 해인 2003년에는 전국 고품질 쌀로 선정된 12개 브랜드 중 33%인 4개가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06년과 2007년에는 42%인 5개 브랜드가 각각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도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등 4개의 브랜드가 선정돼 '고품질 쌀' 하면 '전남'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그런데 품질과 수량이 떨어져 소득까지 낮은 밭벼가 지난해 우리 도에 4천여ha가 재배돼 '육에 티'가 되고 있다.

또한 밭벼는 논 벼에 비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밥맛이 떨어지고 규산질 비료 흡수율이 낮아 도열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가 많아 친환경 재배가 어려우며 수량도 논 벼의 절반 수준으로 관수시설이 없는 밭에서는 가뭄 발생시 수확도 할 수 없는 위험부담이 있다.

물인 황금, 울금, 작약, 하수오 등 유망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해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올해부터 밭벼를 재배하지 말고 쌀에 비해 소득이 높고 지역 여건에 알맞은 작물을 선택해 재배하자. 기후가 온난한 지역인 고흥의 경우 친환경 석류, 진도의 울금, 장흥의 햇개나물, 영암의 무화과, 안동의 비파, 담양과 같이 다소 기온이 낮은 지역은 기능성 작물인 오디와 블루베리 등 밭벼 대신 소득작물을 재배해 쌀 산업의 안정은 물론 높은 소득까지 올리자.

최근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보다는 품질과 기능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챙기는 소비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니 소비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농과 무농약재배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자.

특히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과 함께 소비까지 감소하고 있으니 쌀 산업이 안정되어 고품질 쌀이 재고를 받을 수 있도록 밭벼는 한 포기도 재배하지 말고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과 소득작물로 대체 재배해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자.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제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세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 회 1 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지킴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